

<http://www.acrofan.com/ko-kr/consumer/content/?mode=view&cate=0303&wd=20111116&ucode=0003030205>

ACROFAN The Contents Agent Group

Consumer Commerce Life Live

SEARCH SEARCH

Home > Live > Report

**[취재] 2011 하반기 넷이벤츠 인터뷰 I : MEF** [종목] 컴퓨터 [분야] IT일반 [작성자] 류재용 [작성일] 2011.11.16. 23:49

2011년 11월 16일과 17일 양일 간의 일정으로, 태국 푸켓 소재 인디고 펄 리조트(Indigo Pearl Resort, Phuket, Thailand)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지난 4월에 열린 상반기 행사에 이어 열린, 11월 정례 하반기 행사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16일 넷이벤츠의 오후일정은 업계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 시간으로 할애되었다. 아크로팬은 제일 먼저 지난 상반기 넷이벤츠에서도 만났던 MEF 난첸(Nan Chen) 회장을 만나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 [취재] 2011 하반기 넷이벤츠 인터뷰 I : MEF

[종목] 컴퓨터 [분야] IT일반 [작성자] 류재용 [작성일] 2011.11.16. 23:49

2011년 11월 16일과 17일 양일 간의 일정으로, 태국 푸켓 소재 인디고 펄 리조트(Indigo Pearl Resort, Phuket, Thailand)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지난 4월에 열린 상반기 행사에 이어 열린, 11월 정례 하반기 행사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16일 넷이벤츠의 오후일정은 업계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 시간으로 할애되었다. 아크로팬은 제일 먼저 지난 상반기 넷이벤츠에서도 만났던 MEF 난 첸(Nan Chen) 회장을 만나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 MEF 난 첸(Nan Chen) 회장

Q1. (아크로팬) 올해 상반기 랑카위에서 있었던 넷이벤츠에서 KT 임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한국 MEF 멤버가 없어졌다고 들었다. 이후 한국 내에서 파트너사나 멤버 영입은 잘 되었는가? 지난 6월에 한국에 온다고 그랬는데, 그 때 성과가 있다면 밝혀달라.

KT는 내부 구조조정으로 멤버가 아니게 되었다. 최근에 LG에릭슨이 멤버로 가입해 인증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한국에 방문을 하려 했으나 못했다.

Q2. (아크로팬)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서 캐리어 이더넷의 역할과 레퍼런스를  
엔드포인트 기준으로 단일 국가 내인 로컬과 대륙 간과 같은 글로벌 구분해 소개해 달라.  
그리고 국가별, 대륙별로 흩어진 유무선통신사들을 연합체계로 묶는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클라우드 캐리어와 관련해 표준을 정의하는 단계다. 클라우드는 인터넷 기반이다. 사실  
아직은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여건이다. 캐리어 이더넷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쪽에서 원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을 제공하려고 한다. 클라우드  
공급자와 소비자 연결을 클라우드 캐리어가 맡을 것이다.

연합체계로 묶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MEF 글로벌 인터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고 있다. 'e엑세스' 프로그램 통해 추구하고 있다. 익스터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캐리어 간에 더 원활하게 인터커넥트가 가능하게 진행하고 있다.